

반여2~3동 교통혼잡 조속한 해결을



박성식 의원
(반여2·3동, 재송2동)

반여2·3동과 재송동을 잇는 '재반로'는 이 지역의 교통 요충지이자 중심축이지만 4차선 도로 중 2차선만 활용하고 양쪽 끝차선을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해 혼잡하다. 공영주차장이 완공됐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요금 등으로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만연하다.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교통 정체를 개선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제1차 본회의)



원문 보기

살고 싶은 도시, 직원도 일하기 좋아야



김성군 의원
(반송1·2동)

해운대구 공무원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 공무원 1명당 담당 주민이 많아 많은 업무 부담을 안고 있어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청장은 공무원들의 휴식을 존중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해 주민 서비스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공직을 떠나는 직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휴식과 업무의 균형을 맞춰주고 해운대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제2차 본회의)



원문 보기

4차산업시대 해운대를 스마트관광도시로



이상곤 의원
(재송1동)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부산의 관광 중심이 해운대에서 영도로 이동하는 추세라고 한다. 전통적인 관광명소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영도의 매력과 특성 때문이다. 해운대구도 이름만 특구가 아닌 스마트 관광도시를 구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해운대는 매력성, 접근성, 디지털 기반, 지속가능성, 협력적 파트너십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 관광을 통해 해운대를 알리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제1차 본회의)



원문 보기

해운대구의 얼굴 '해운대로'의 민낯은



원문 보기

옛날부터 손님맞이의 기본은 앞마당을 쓸고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다. 해운대구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해운대로'는 해운대의 마당이자 얼굴이다.

해운대로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원동IC에서 중동 이마트까지 왕복 15km를 두 번에 걸쳐 걸었다. 양 방향을 모두 확인한 결과 정말 많은 폐기물, 불법 시설물, 쓰레기 등이 도로변에 흩어져 있었다. 이는 구의 위상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방문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있어 부끄럽기 그지없다. 지역 발전과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운대로의 관리 상태 개선에 나서기를 촉구한다.(제2차 본회의)

달맞이 마을버스 문제점, 시는 응답하라



유정자 의원
(중2동, 좌2동, 송정동)

달맞이를 경유해 도시철도 해운대역에서 청사포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버스회사가 승객 감소와 유류비 인상으로 운영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버스 운영 중단, 고무줄 배차 등으로 야기되는 불편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배차간격을 조정해 연계 운영, 운영실태를 재점검, 정확한 안내 고지, 배차간격 인지를 위한 신형 버스 표지판 교체 등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제1차 본회의)



원문 보기

달맞이길 경관 용역 단디합시다



원문 보기

명품 해안로인 달맞이길은 동양의 몽마르뜨 언덕이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는 관광명소였으나 지금은 수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름다운 절경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다. 부산시가 달맞이길을 새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여 두 가지를 당부드린다. 첫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시계획부터 적극 반영해 첫 단추부터 잘 채워야 할 것이다. 둘째,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위해 달맞이를 경유하는 마을버스의 운영을 당초 배차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운행하고, 식별이 어려운 버스 표지판 교체 등에도 나서야 한다. 경관관리실시계획을 시작으로 달맞이길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제2차 본회의)

혁신적인 관광산업 발굴 노력을



박기훈 의원
(재송1동)

해운대구는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하천 인프라가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광자원은 멀리 있지 않다. 주민이 찾아오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장산에 맨발 걷기 공간을 만들고 수영강에는 계절에 맞는 꽃밭을 조성해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안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제2차 본회의)



원문 보기

☑ 해운대구의의회 홈페이지 council.haeundae.go.kr

☑ 해운대구의의회 유튜브 해운대구의의회 검색

☑ 해운대구의의회 페이스북 www.facebook.com/haeundaegucouncil

☑ 해운대구의의회 사무국 051-749-4091~3

